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아르헨티나

Republic of Argentina

2019년 2월 22일 | 팀장(G2) 오경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2,780천 km ² 	인구 4,457만 명 (2018°)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GDP 4,754.29억 달러 (2018°) 	1인당GDP 10,667.10달러 (2018°) 	통화단위 Peso(Ps) 	환율(U\$기준) 28.09 (2018°) 

□ 아르헨티나는 남미 대륙 남부 및 남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칠레, 볼리비아, 파라과이, 브라질, 우루과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12배이며, 인구는 2018년 4,457만 명으로 추정됨.

□ 세계 3대 곡창지대의 하나인 팜파스 대평원과 셰일가스, 셰일오일, 광물자원, 수산자원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기후 및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5년 12월 출범한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의 현 행정부는 친시장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으나, 2018년 들어 심한 가뭄으로 인한 흉작, 외국인투자자금 이탈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페소화 가치 폭락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음.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국제무역 성장세 둔화는 1차산품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르헨티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마크리 행정부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지역 경제블록을 통한 역내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에는 남미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관계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2. 15. 수교 (북한과는 1973. 6월 수교, 1977. 6월 단교)

주요협정 문화협정(1970), 투자보장협정(1996), 원자력협력협정(1997), 범죄인인도조약(2000), 과학기술협력협정(2003), 항공협정(2004), 외교관·관용사증면제각서(2004), 경제무역협력협정(2006), 교육문화협력협정(2007), 형사사법공조조약(2013),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조약(2019)

한-아르헨티나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 품목
수 출	795,651	836,174	536,361	화학제품, 섬유, 전기기기, 기계류
수 입	832,577	612,437	405,944	농수산물, 모피, 양모, 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8. 9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63건, 187,234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2.5	2.7	-1.8	2.9	-2.6
소비자물가상승률	38.1	26.5	41.4	25.7	31.8
재정수지/GDP	-4.3	-6.0	-6.6	-6.7	-5.4

자료: IMF, EIU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

- 2017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친기업·친시장 정책 추진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 농업·건축·제조·소매업 등의 호조,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브라질 경제의 플러스(+) 성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의 역성장(-1.8%)에서 벗어나 2.9%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2017년 기준 아르헨티나 수출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브라질의 경제성장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
- 그러나 2018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으로 대두(soybean), 옥수수, 오일시드(oilseed)¹⁾ 재배지역이 피해를 입어²⁾, 미국 농무부(USDA)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대두/옥수수/오일시드 생산량은 2016/17년 5,500만 톤/4,100만 톤/6,016만 톤에서 3,780만 톤/3,200만 톤/4,252만 톤으로 각각 급감하였음.³⁾
- 아울러 폐소화 가치 폭락에 따른 소비자물가 폭등으로 초래된 민간소비 위축,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대폭 인상에 따른 자금공급 경색으로 초래된 투자 냉각 등이 산업생산 및 소매매출 감소로 이어져, 아르헨티나 경제는 2018년 -2.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금년 1월에는 북동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예년의 5배에 달하는 강우량 집중) 홍수가 발생하여 약 240만 헥타르의 대두 경작지가 침수되며 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유발한 것으로 추산되어, 금년에도 대두 작황은 예년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⁴⁾
- 또한 높은 물가상승률과 자금공급 경색의 지속에 더하여 강력한 긴축 재정정책 시행, 미-중 무역분쟁 여파 등으로 민간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의 동반 위축, 산업생산 및 수출 부진이 불가피하여, IMF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2019년에도 -1%대 중·후반의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1)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 종자.

2) 남반구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는 9~12월이 봄, 이듬해 3월까지 여름, 4월이 가을로 곡식을 수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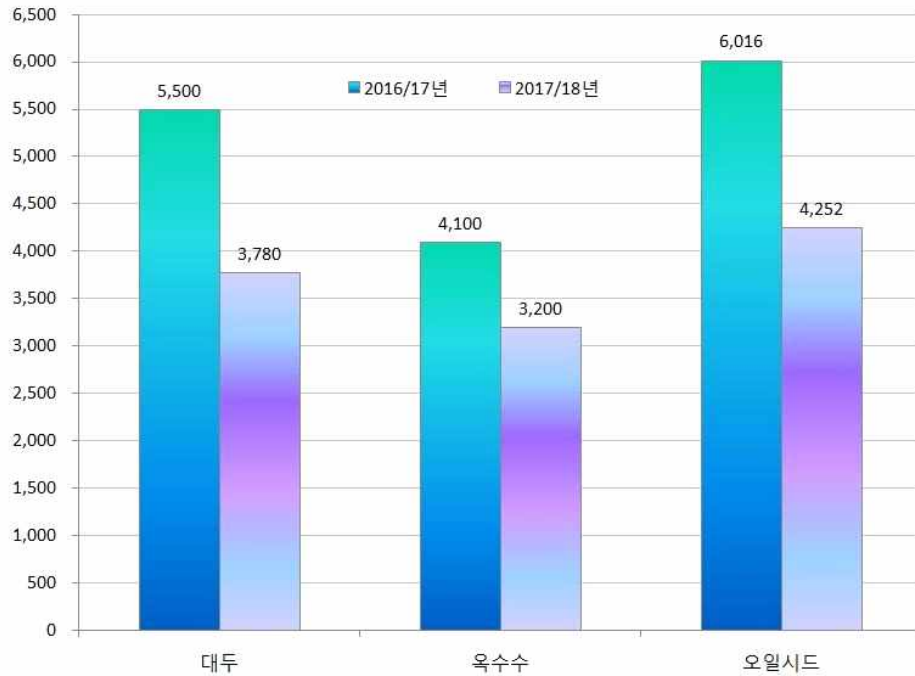
3) USDA World Agricultural Production, February 2019 (apps.fas.usda.gov/psdonline/circulars/production.pdf)

4) <http://www.batimes.com.ar/news/argentina/devastating-floods-cost-2-billion-displace-thousands.phtml>

국내경제

아르헨티나의 2016/17년과 2017/18년 주요 농산물 생산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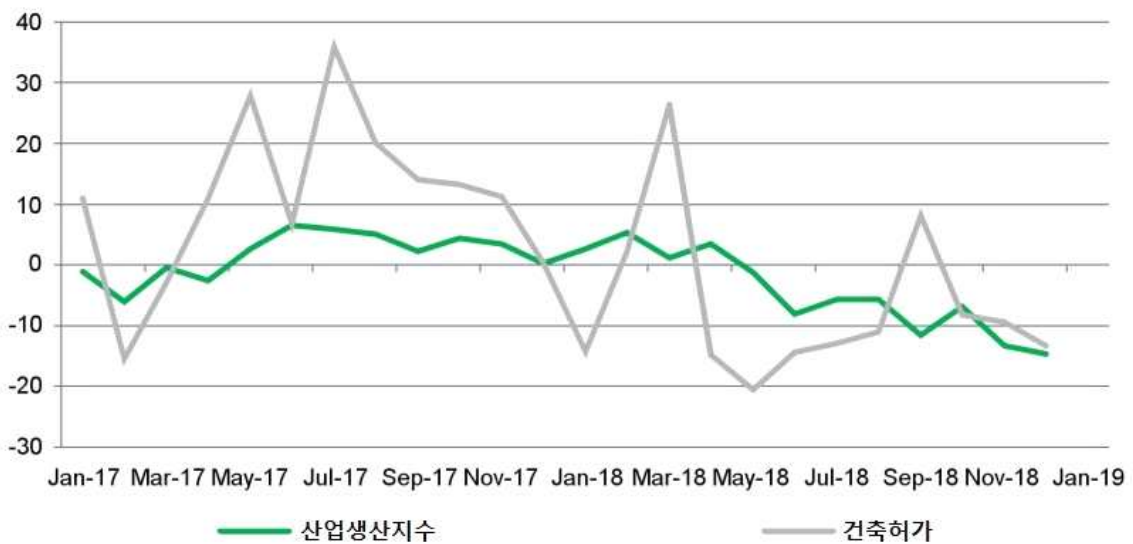
단위: 만 톤



자료: 미국 농무부(USDA)

아르헨티나의 2018년 산업생산지수 및 건축허가 전년 대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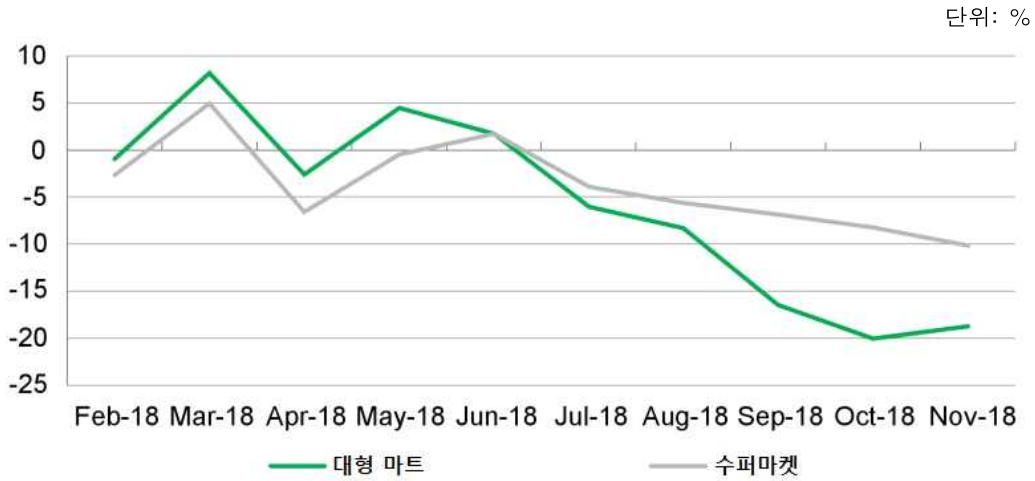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HS Markit

국내경제

아르헨티나의 2018년 실질 소매매출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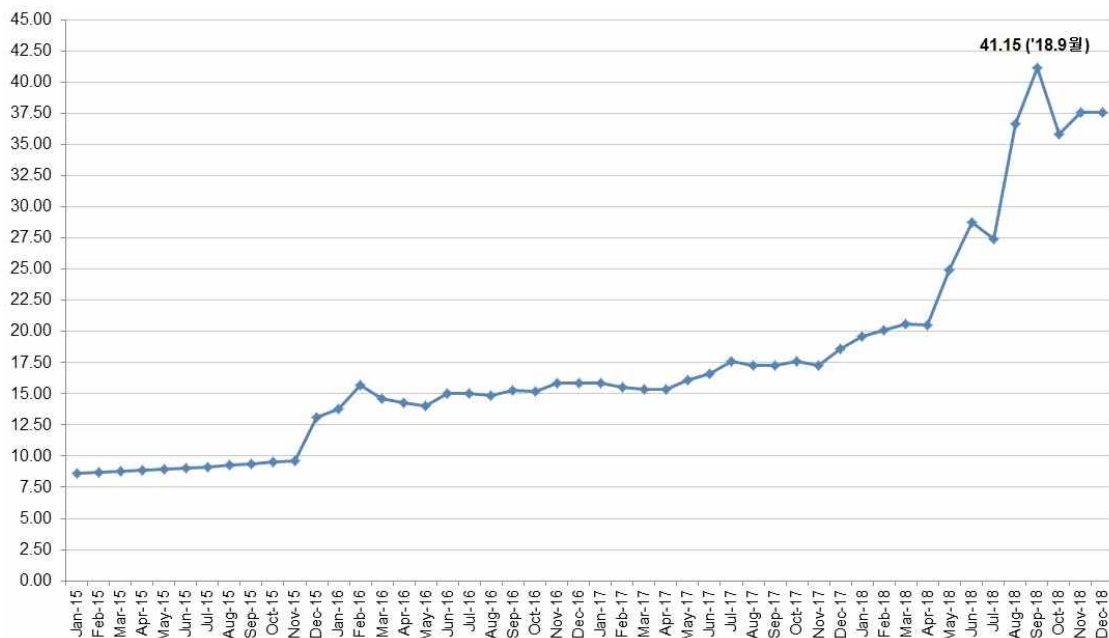


자료: IHS Markit

IMF 구제금융 수혜 조건에 따른 강력한 긴축 재정정책 추진

- 극심한 가뭄에 따른 농산물 작황 타격, 보조금 삭감에 따른 국민적 반발에 직면한 경제개혁 후퇴로 촉발된 외국인투자자금 이탈,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18년 들어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여 미 달러당 환율이 9월 말 41.15페소까지 급등하였음.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미 달러 대비 월말 환율 (2015~18년)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 (조회일자: 2019.2.20.)

국내경제

- 이에 마크리 행정부는 물가 급등을 억제하고 외국인투자자금 이탈을 막고자 5월 초 기준금리를 1주일 사이에 27.25%에서 40%로 급격히 인상하고, 8월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60%로 인상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결국 2018년 5월 IMF에 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지원기간 3년의 대기성차관)을 신청하였으며, 양측은 6월 구제금융 제공 조건에 합의하였음.
- 마크리 행정부와 IMF는 9월 26일 동 구제금융 규모를 571억 달러로 확대하고, 마크리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9년 말까지 190억 달러를 우선 지원키로 합의하였음.
- IMF와의 구제금융 공여 합의 후에도 폐소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이 가속화되자, 마크리 행정부는 2018년 9월 3일 전례 없이 강력한 수준의 비상 긴축정책을 발표하였음. 동 정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입 증대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12%의 수출관세⁵⁾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함. 상품 수출은 FOB 기준 수출가격 1달러당 주력 수출품인 곡물을 포함한 1차산품에 4페소, 그 외의 상품에 3페소의 상한선을 부여⁶⁾하며, 서비스 수출은 인보이스(invoice) 기준 수출가격 1달러당 4페소의 상한선을 부여함.⁷⁾
 - 현재의 19개 정부부처 중 보건, 노동, 환경, 에너지, 관광, 농업, 문화, 과학 등의 부처를 통폐합하여 총 10개 부처로 개편함으로써 공무원원을 대폭 감축하여 공공 부문의 임금 지출을 축소함.
- 이러한 긴축정책을 반영한 2019년 정부 예산안은 IMF 구제금융 수혜 조건인 IMF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재정지출의 2018년 대비 27% 삭감을 통한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균형 달성⁸⁾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IMF와의 합의는 201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1.3%까지 낮추고,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19년 17%, 2020년 13%, 2021년 9%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있는 상황에서 마크리 행정부가 본 예산안을 그대로 실천할 것인지 미지수임.
- 2017년 중앙정부와 주 정부들은 주 정부가 부과하는 총수입세(gross revenue tax)의 감축에 합의하였으나,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주 정부에 대한 수입 이전(transfer)을 삭감함에 따라 총수입세 감축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됨.

5) 마크리 행정부는 2015년 집권 후 쇠고기, 밀, 옥수수 등 주요 농축산물(대두 제외)과 광물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하였으나, 동 조치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가 부활되었음. 한편, 대두의 경우 수출관세를 35%에서 30%로 낮춘 뒤 2018년 1월부터 매월 0.5%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동 조치로 당분간 18%의 수출관세가 부과됨.

6) home.kpmg/xx/en/home/insights/2018/09/tnf-argentina-temporary-export-taxes-12-percent.html

7) 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argentina-establishes-temporary-duties-on-export-of-service

8) 한 국가의 재정수지는 당해 회계연도의 정부수입(revenue)에서 정부지출(expenditure)을 차감한 수치인데, 정부지출에서 정부채무에 대한 이자지출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를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로 정의함. 한 나라의 정부가 기초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은 당해 회계연도의 정부수입이 '과거에 발생한 정부채무에 기인한 재정적자를 제외한 정부지출'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함.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큰 국가들의 경우,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은 GDP 대비 부채 비중 축소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됨.

(자료: IMF Pamphlet Series No.49, Guidelines for Fiscal Adjustment: www.imf.org/external/pubs/ft/pam/pam49/pam4902.html)

국내경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30%대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전망

- 폐소화 가치 폭락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 국제유가 상승세 등의 대외요인에 더하여 IMF 구제금융 수혜 조건 충족을 위한 강력한 긴축 재정정책에 따른 각종 보조금 삭감 조치로 공공요금이 급등하면서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
-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마크리 행정부 출범 이후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2019년 1월까지 상수도 요금이 483% 인상되었으며, 수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인 그란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의 전력 요금은 1,300% 이상, 도시가스 요금은 전국적으로 900% 이상 인상되었음.
- 2019년에도 폐소화 약세 지속과 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긴축 재정정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삭감의 지속이 예상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30%대 초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작년 9월 IMF와 합의한 구제금융 수혜 조건에 따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변동환율제를 유지해야 하며, 환율 변동이 과도할 때만 제한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음. 즉, 폐소화 가치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폐소화 가치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은 2018년 12월 및 2019년 1월의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이 각각 2.6%와 2.9%를 기록하여, 2019년 1월 기준 물가상승률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하였음.⁹⁾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9,179	-17,622	-15,105	-31,598	-27,323
경상수지/GDP	-1.6	-2.7	-2.7	-5.0	-5.7
상 품 수 지	5,541	-785	4,416	-5,462	-1,197
상 품 수 출	68,440	56,809	57,960	58,639	61,291
상 품 수 입	62,899	57,594	53,544	64,101	62,488
외 환 보 유 액	26,042	20,571	33,563	50,107	59,238
총 외 채	170,375	173,457	190,490	238,190	278,190
총외채잔액/GDP	30.2	27.0	34.4	37.4	58.5
D.S.R.	24.8	30.3	31.2	32.2	73.9

자료: IMF, EIU

1차산품 의존형 수출구조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아르헨티나의 상품수출은 농산물, 광물 등 1차산품에 의존하는 원자재 의존형 구조이며, 기후 및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등의 요인들에 의해 경상수지가 좌우됨.
- 최근 수년 간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승을 지속해온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주요 수출품인 대두, 대두박(soybean oil meal) 등 농산물(가공품 포함) 국제가격이 2017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임에 따라 2017년 -5.0%에 이어 2018년에는 -5.7%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대두의 2018년 국제가격(시카고거래소 연결선물 기준)은 3월 5일 부셸¹⁰⁾당 1,066.6센트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거듭하여 9월 18일 연중 최저치인 814센트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 반등세를 보였으나 2019년 들어서도 2월 현재 930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음.
 - 대두박의 2018년 국제가격(시카고거래소 연결선물 기준) 역시 5월 1일 숏톤¹¹⁾당 403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거듭하여 9월 18일 연중 최저치인 300.5달러까지 하락하였으며, 2019년 들어서도 2월 현재 320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음.
- 2019년에도 연초의 홍수로 인한 대두 경작지 피해 발생으로 농산물 수출 감소가 전망되고, 대두와 대두박의 국제가격이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10) bushel. 과일·곡물 등의 중량 단위. 미국에서 1부셸은 대두·소맥의 경우 27.2kg, 옥수수의 경우 25.4kg임.

11) short tone. 미국에서 1숏톤은 907.18kg임.

대외거래

대두(soybean)의 최근 1년 간 국제가격 추이



* 시카고거래소(CBOT) 연결선물(2019.3월) 기준
자료: CBOT (조회일자: 2019.2.20.)

대두박(soybean oil meal)의 최근 1년 간 국제가격 추이



* 시카고거래소(CBOT) 연결선물(2019.3월) 기준
자료: CBOT (조회일자: 2019.2.20.)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증가 추세이나 대외차입에 주로 의존한 결과로 추정

- 외환보유액은 2016년 월평균수입액의 4.5개월분, 2017년 5.5개월분에 이어 2018년에는 6.5개월분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이러한 증가는 일정 부분 2017년의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증가에도 기인하지만 대부분 국채 발행을 비롯한 대외차입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침체로 외국인투자 유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차입에 의존한 외환보유고 확충은 장기적으로 외채부담 증대를 초래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외채상환능력

2018년 국채 발행 증가와 IMF 대기성차관 도입 등으로 외채규모 급증

- 아르헨티나는 재정·경상수지 적자 보전과 인프라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대외차입 규모를 늘려 외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 여기에 최근 미 달러화의 강세는 외채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2016년 4월 15년 만에 165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발행금리 연평균 7.14%)에 성공한 데 이어 2017년 6월 투자부적격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 중 최초로 27.5억 달러 규모의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였음.
- 100년 만기 국채 발행의 성공은 마크리 행정부의 친기업·친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의 산물로 평가되었으나, 발행금리가 연평균 7.9%에 달하는 데다 2018년 들어 폐소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외채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음.
- 아르헨티나 정부가 2018년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외화자금 조달 계획을 추진함에 따른 국채 및 국고채(treasury note) 발행, IMF로부터의 대기성차관 도입 등으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7년 37.4%에서 2018년 58.5%로 급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부채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18년 아르헨티나의 국채 및 국고채 발행 내역

발행일	종류	발행규모	만기	발행금리
1월 4일	국채	17.5억 달러	5년	4.625%
		42.5억 달러	10년	6%
		30억 달러	30년	7%
1월 8일	국고채	9.5억 달러	217일	4.75%
7월 11일	국채	16억 달러	8개월	2.35%
		2.2억 달러	210일	4%
	국고채	2.94억 달러	378일	5.5%
11월 29일	국채	23억 달러	1.5년	8%
		365억 페소	4년	8.5%
12월 12일	국고채	8.5억 달러	196일	4.75%

자료: cbonds.com, Reuter

- 마크리 행정부 출범 이후 30%대 초반을 유지하던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국채 발행을 비롯한 대외차입의 급증으로 2018년 말 무려 57%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의 차입 증가에 따라 D.S.R.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됨.
- IMF는 2018년 10월 대출계획을 승인한 571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 중 76억 달러의 대출을 2018년 12월 19일 승인하였음. 아르헨티나가 6월 이후 현재까지 IMF로부터 지원받은 구제금융 총액은 280.9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IDB)은 2018년 11월 1일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해 총 18.5억 달러(세계은행 9.5억 달러, IDB 9억 달러)의 대출 제공을 결정하였음.¹²⁾

12) 세계은행 대출금 중 5억 달러는 정부 예산지출에, 4.5억 달러는 2020년까지 25만 명의 아르헨티나 어린이들을 위해 지출될 계획임. IDB 대출금 중 6억 달러는 최소 400만 명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될 계획임.

구조적취약성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아르헨티나는 대두(soybean) 생산량 세계 3위(전 세계의 14.8%, 이하 모두 2017년 기준) 및 수출량 세계 1위(전 세계의 45.5%), 옥수수 생산량 세계 5위(전 세계의 4.2%) 및 수출량 세계 2위(전 세계의 17.3%)의 세계적인 농업국가임.
- 2017년 수출금액 기준 상위 5대 수출품목은 대두박(17%), 곡물류(12%), 자동차(조립생산, 9.9%), 동식물성 유지(8.3%), 채유용 종자 및 과일(5.4%) 등이며, 상위 5대 수출대상국은 브라질(16.0%), 미국(7.9%), 중국(7.5%), 칠레(4.6%), 베트남(4.0%) 등임.¹³⁾
-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1차산품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여, 국가경제가 기후에 따른 농업 생산량과 농산물 국제가격 변동에 크게 좌우됨. 이는 아르헨티나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함.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140개국 중 136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음.¹⁴⁾

육상물류 관련 인프라 부족이 경제발전에 걸림돌

- 아르헨티나는 넓은 국토면적에 비해 도로, 철도 등 육상물류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며, 이는 인접국과의 무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재 수송 등에 지장을 초래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인프라 부문 순위는 140개국 중 68위로 직전 보고서(137개국 중 81위) 대비 개선되었으나, 세부 항목별로는 도로 상태(93위), 철도운송 효율성(95위) 등 육상물류 항목이 여타 항목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성장잠재력

풍부한 부존자원, 광업 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발 잠재력

-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 남미 2위의 국토면적(한반도의 12배)을 가진 국가로 전 국토의 60%가 농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대평원이며, 셰일가스(매장량 세계 2위), 셰일오일(매장량 세계 4위), 광물자원, 수산자원 등 부존자원이 풍부함.
- 특히 금, 은, 동, 리튬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자본 부족 등으로 전체 국토의 75% 지역이 미개발된 상태임에 따라 개발 잠재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13) 자료: Trading Economics

14)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성장잠재력

보편적 의무교육 시행으로 비교적 양질의 인적자원 보유

- 보편적 의무교육 시행을 통해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대다수가 유럽계 백인으로 국민들의 평균 교육연수가 높아 문맹률도 약 2%로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 국민의 학교 재학기간 기대수준(school life expectancy)은 17.4년으로 조사대상 140개국 중 13위 수준임.

정책성과

시장친화적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지표 개선 효과는 2018년 들어 경기침체 등으로 상쇄

- 마크리 행정부는 출범 후 경제왜곡 시정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환율 단일화 실시, 보조금 삭감, 외환규제 폐지, 물가안정 중심의 통화정책 시행 등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음.
-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인 물가 급등,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2016년 경제는 -1.8%의 마이너스 성장과 41.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 민간소비 및 투자 회복 등으로 2017년 2.9%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물가상승률도 25.7%로 하락하였음.
- 그러나 2018년 들어 농산물 작황 부진, 폐소화 가치 폭락 등 각종 악재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고 경제 성장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개혁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된 실정임.

세금·연금·노동의 3대 부문 개혁을 추진 중이나, 법인세율 인하는 당초 예정보다 연기될 전망

- 2017년 10월 의회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 마크리 행정부는 세금·연금·노동의 3대 부문에 대한 개혁 추진에 나섰다. 그 결과 2021년까지 법인세율을 35%에서 25%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2019년 30%, 2021년부터 25%) 등 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세제개혁안¹⁵⁾이 2017년 말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 그러나 이후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에 따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2019년에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1.3%까지 개선할 것을 약정함에 따라,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법인세율 인하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임.
- 한편, 마크리 행정부는 연금 지급액 결정시 임금상승률 대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분기마다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연금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2017년 12월 의회의 승인을 받았음.
- 아울러 마크리 행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노동시장 경직성의 해소를 위해 의무해고, 연장 근로수당 감축, 국가 고용보험 도입을 통한 고용유연성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 중임.

15) 동 개혁안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외화표시 국채의 이자수익에 대한 15%의 자본이득세 도입, 주류(酒類)와 당분 포함 음료에 대한 세율 인상, Netflix와 Spotify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 등도 포함하고 있음.

정책성과

기업경영여건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은 여전히 미비

- 아르헨티나는 경제성장과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장기 안정적인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수적이거나, 기업경영여건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반 시스템 및 환경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9 보고서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조사대상 190개국 중 119위로 하위권에 그쳤음. 부문별로는 소액투자자 보호(57위)와 자금조달(85위)을 제외한 전 부문이 100위권 밖이며, 특히 납세(169위)와 건축인허가(174위)의 순위가 매우 낮아 과도한 정부규제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과도한 정부 규제는 이를 우회하기 위한 뇌물 공여를 유발하고 이는 정부 관리들의 고착화된 부정부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업환경은 물론 사회 전반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함.¹⁶⁾
- 아울러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 보고서에서도 아르헨티나는 조사대상 140개국 중 회계감사 기준 및 역량 104위, 재산권 보호 114위,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의 효율성 119위, 정부 규제 부담 126위 등으로 기업의 투자 및 경영 관련 항목에서 모두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음

16)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8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보고서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조사대상 183개국 중 전년대와 동일한 85위로 중간 수준이지만 인접국들인 우루과이(23위)와 칠레(27위)에 비해 훨씬 낮은 순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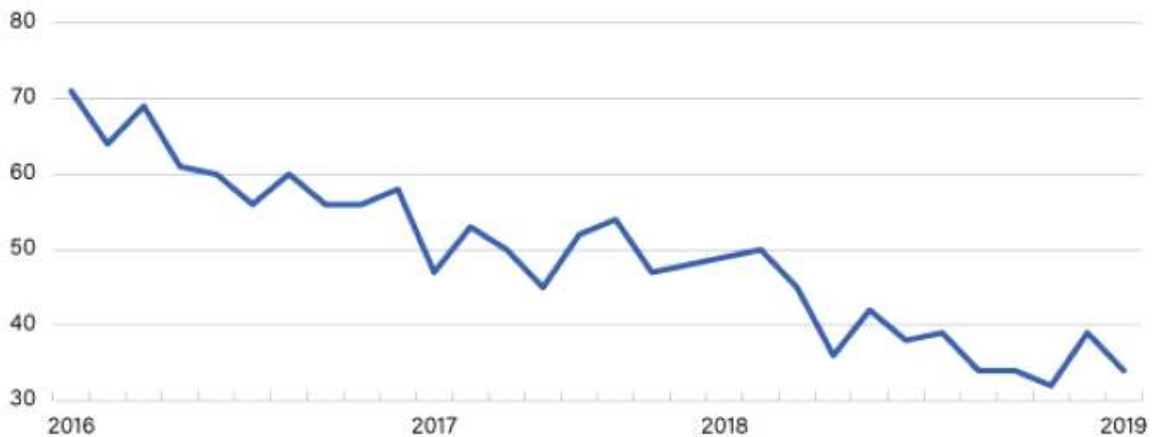
정치동향

마크리 대통령, 환율·물가 급등 및 마이너스 경제성장 등으로 재선 가능성에 의문 제기

- 2015년 11월 실시된 대선에서 야권 연합후보인 공화당(PRO)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후보가 당선되면서 12년 만에 우파 정권이 탄생하였음.
- 마크리 행정부는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며 시장친화적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출범 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 10월 의회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여 경제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음.
- 다만, 여전히 야당들이 다수의 의회 의석(상원 65%, 하원 58%)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등의 추진 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2018년 들어 환율·물가 급등, 가뭄으로 인한 흉작,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제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강력한 긴축 재정정책 실시로 보조금 축소 등이 이어지자, 2016년 초까지도 70%를 넘었던 마크리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2019년 1월 34%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오는 10월 27일 실시될 아르헨티나 총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주 지사 선출)에서 마크리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총선 전까지 야권의 분열이 계속되고, 국민의 신망을 잃은 Ch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前대통령이 총선에 재출마할 경우 마크리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마크리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Eurasia Group Politics First: Latin America - Argentina (2019-02-15)

사회동향

취약한 치안, 실업률 및 빈곤율 상승,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 증가로 사회불안 고조

- 아르헨티나는 2001년 경제위기 이후 치안상태가 악화되어 납치, 강도, 날치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음.¹⁷⁾
- 공식 실업률은 2015년 6.7%에서 2018년 9.8%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는 10%대 초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둔화로 인한 실업문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음.¹⁸⁾
- 한편,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은 2016년 3년 만에 처음으로 30.3%까지 상승한 빈곤율이 2018년 상반기 27.3%로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경기 둔화의 여파로 2018년 말에는 33%까지 다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¹⁹⁾
-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이 갈수록 강화되자, 공과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작년 9월 중순부터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여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국제관계

2018년 11월 G20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국제관계 신뢰 회복 및 위상 제고 도모

- 아르헨티나는 2018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이전 정부의 12년 간 계속된 국제관계 고립에서 벗어나 자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친시장주의 및 개방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여, 마크리 대통령은 2018년 1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여 포럼 기간 중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자국의 경제적 잠재력 부각을 위해 노력하였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응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아르헨티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됨에 따라, 무역 확대와 경제개방을 추진하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역내 경제공동체에서의 협력 강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음.
-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로 폐소화 가치가 폭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보호무역주의 공세로 국제무역이 위축되면서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물 국제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17)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범죄 및 부정부패 관련 지표(순위가 낮을수록 부정적)에서 조사대상 140개국 중 인구 10만 명 대비 살인사건 발생 95위, 조직범죄 106위, 경찰에 대한 신뢰도 115위 등으로 치안상태가 좋지 않음.

18) IHS Markit, Global Economics | Profile - Argentina (2019-01-22)

19) www.reuters.com/article/us-argentina-economy-crisis/how-a-year-of-endless-storms-battered-argentinas-economy-idUSKCN10J18G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제관계

MERCOSUR 등을 통한 역내 협력 발전에 주력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MERCOSUR 차원에서 역외국과의 FTA를 동료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추진함.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중남미 경제블록인 MERCOSUR는 중남미 인구의 약 70% 및 GDP의 약 80%를 점유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시장임.
- 아울러 아르헨티나는 2016년 6월 MERCOSUR와 경쟁관계에 있는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²⁰에도 옵저버로 가입하는 등, 좌우 이념 대립보다는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음.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 우려

- 2014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1,000억 달러 규모의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하자, 중국이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아르헨티나에 접근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되었음.
- 중국은 11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을 제공하여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 고갈 해소를 돕고, 아르헨티나의 농업 중심부를 종단하는 철도의 재건 프로젝트, 파타고니아 남부의 수력발전용 댐 2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한편 네우켄 주에 자국의 우주과학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도 착수하였음.
- 그러나 마크리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투명성 부족, 환경영향 평가 등을 이유로 2개의 댐 건설을 중단 시키자, 중국은 2016년 7월까지 아르헨티나로부터의 대두 수입물량을 30% 줄이고 댐 건설 계약서에 공사 중단시 철도 재건 공사도 중단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내세워 마크리 행정부를 압박하였음.
- 이에 마크리 행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돌파구를 찾으려 시도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노골화되자 중국에 굴복하여 이후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원유, 광업, 인프라 관련 투자 유치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 마크리 대통령은 2017년 5월 중국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2018년 12월 중국과 아르헨티나는 30개 이상의 신규 농업 프로젝트 및 투자 계약에 상호 서명하였음. 동 계약에는 86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무이자 조건)이 포함되어, 중국은 국제금융기구를 제외하면 아르헨티나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채권자가 됨.
- 2018년 아르헨티나의 대 중국 대두 수출물량은 약 7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중국은 아르헨티나 북부의 리튬 광산에 투자를 늘리는 등 아르헨티나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마크리 행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2019년 1월 3년 전 중단했던 2개 댐 건설 재개를 결정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대 중국 경제관계 강화는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대규모의 외채를 떠안게 된 개도국들처럼 아르헨티나 경제를 중국에 종속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중국은 남극 지역의 원유와 광물 매장량에의 접근, 우주 기반 군비경쟁을 위한 GPS 기술 개발기지 건설 등을 위해 최남단이 남극에 근접한 아르헨티나를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계획으로 분석됨.²¹⁾

20)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

21) foreignpolicy.com/2019/02/08/us-military-warns-of-threat-from-chinese-run-space-station-in-argentina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개선 추세이나 여전히 대외연체액 상당 규모

- 아르헨티나는 마크리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경제개혁 및 시장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2016년 2월 헤지펀드와 채무조정 합의로 기술적 디폴트 상태가 해소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개선되고 있음.
- 그러나 2018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로부터 제공받은 중장기 여신잔액 44억 8,670만 달러 중 55.3%에 해당하는 24억 8,080만 달러가 연체 상태에 있음.
- 1816년 독립 이후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국가부도를 선언한 전력 아르헨티나는 2001년 1,000억 달러의 대규모 디폴트 선언, 2014년 기술적 디폴트 발생, 파리클럽과의 9차례에 달하는 채무재조정 경험 등 취약했던 외채상환태도의 개선을 위해 향후에도 성실한 채무상환 이행 등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6등급 (2018.10)	6등급 (2017.10)
Moody's	B2 (2017.11)	B3 (2017.03)
Fitch	B (2018.11)	B (2018.05)

OECD, 2016년 10월 신용등급 상향 조정 후 계속 유지

- OECD는 2016년 10월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14년 만에 기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17년 11월 마크리 행정부의 경제개혁 추진 지속가능성을 근거로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B3에서 B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Fitch는 2016년 5월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B로 부여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경제는 2018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흉작, 페소화 가치 폭락에 따른 소비자물가 폭등, 기준금리 대폭 인상에 따른 투자 냉각 등으로 -2.6%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으며, 2019년에도 산업생산 및 수출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전망이다.
- 2019년에는 강력한 긴축 재정정책 시행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감소할 전망이나, 보조금 삭감과 페소화 약세 지속에 의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이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연초의 흉수로 인한 작황 부진, 주요 농산물 수출가격 약세 등으로 경상수지도 적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 최근 국채 발행과 IMF 대기성차관 도입 등으로 외채규모가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외채상환태도는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상당 규모의 대외연체액을 안고 있음.
- 마크리 대통령의 우파 행정부는 시장친화적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2018년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여 오는 10월의 총선거에서 재선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아울러 취약한 치안, 실업률 및 빈곤률 상승,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 증가로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경제상황이 현재보다 악화될 경우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추가 하락이 전망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